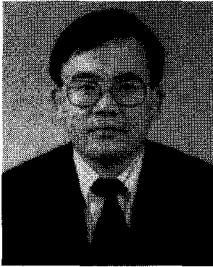


# 세베소 사건



박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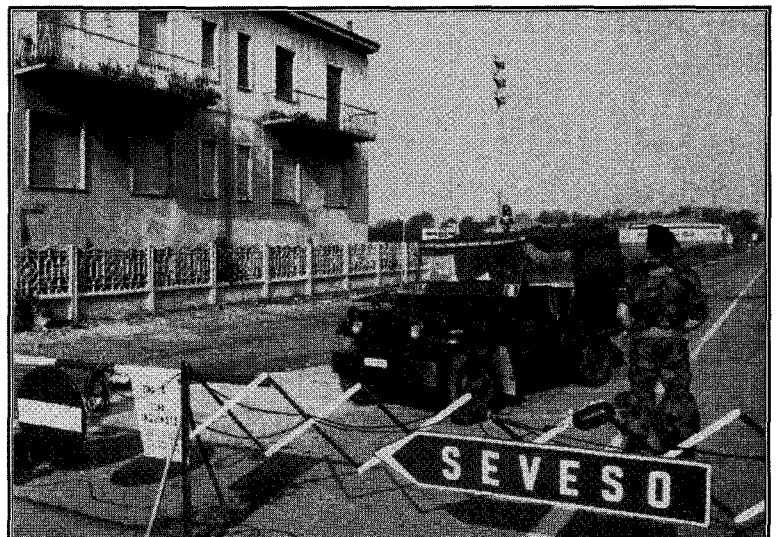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1 1976년 7월 10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베소라는 도시의 한 화학공장에서 반응기 내부의 과압으로 인하여 안전 밸브가 열렸고, 다량의 유독성 화학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이 공장은 스위스 제약 회사 호프만 라로쉬(Hoffman-La Roche)의 자회사인 익메사 화학회사(ICMESA Chemical Company)의 이탈리아 현지공장으로써, 삼염화페놀(Trichlorophenol)이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었다.

15분 동안의 누출에 의한 독성구름이 세베소를 비롯한 인근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11개 마을로 퍼져 나갔다. 누출된 화학물질속에 함유된

염소가스로 인하여 4만마리의 가축이 죽었으며 300여 가구에 전파되었다. 400여명의 임신부 중에서 51명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산하게 되었으며, 100여명은 태아의 기형 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낙태를 실시하였고 낙태를 금기시키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교회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독성물질에 의한 화상과 피부병으로 일시에 흉칙하게 변해갔다.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염소가스 외에도,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는 맹독성인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2킬로그램 함유되어 주변



▲ 이탈리아 군인이 세베소 주변의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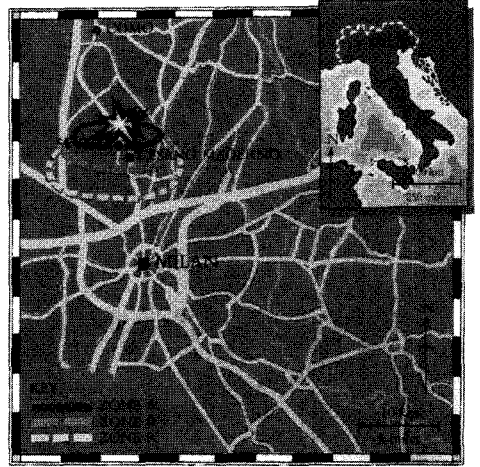
1,800헥타르의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대피 조치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토양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의 독성 때문에 이 지역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하였을 당시 누출된 화학물질의 유독성과 피해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 당국은 10일이 지나서야 이 지역 주민 1만 1천여명에 대하여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는 약 2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현재 세베소 도시 중심부는 폐쇄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50년이 지난 후야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환경오염물질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독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즉 세베소 지역의 토양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이 서식하는 생물과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가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이옥신이란 물질은 생물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고농도로 농축되며 미량으로도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다이옥신은 자연계에서 쉽게 분

해되지 않고 태워도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유해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다이옥신의 생산과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연계로 방출됨으로써 커다란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 PVC (Polyvinyl chloride)와 같은 염화비닐물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제초제에 불순물로서 포함되기도 하며 제철 및 제련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배출가스에도 함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환경 재난시 신속한 사후대책을 실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공정한 피해보상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암살사건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고도 사건의 책임자인 익메사(ICMESA) 화학공장은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그들이 이 지역에 주는 경제 혜택을 내세우며 "자본주의는 발전을 의미하며 발전이 가끔 불편을 줄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처



▲ 15분 동안 방출된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구름이 세베소를 비롯한 인근 5km 이내에 있는 11개 마을로 퍼져 나갔다.

음에 5명의 책임자가 2년반에서 5년 사이의 형을 받게되었으나 당시 인정되지 못한 정치 상황과 부패한 정부하에서 진행된 법정투쟁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 석방하였으며 나머지 2명도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980년 12월에 와서 피해보상은 실제 피해액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9백만 달러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사후대책과 외국자본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 현실에 모든 국민은 분노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를 반대해 온 이탈리아 좌파 집단에게 테러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13년이 지난 1989년 2월, 1976년 당시 익메사(ICMESA) 화학회사의 공장장으로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엔리코 파올레티(Enrico Paoletti)는 전선(Prima Linea)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좌파 테러집단에 의해 세베소 사건의 죄명으로 살해되었다. ◀